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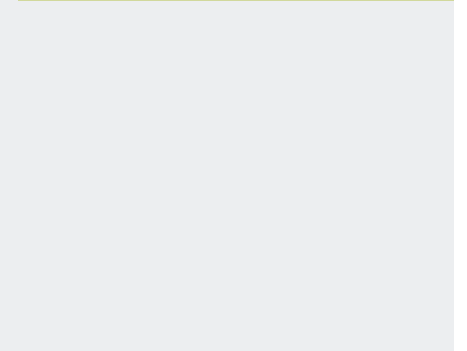
서울민주주의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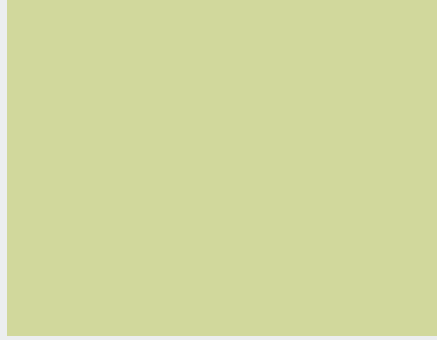
21세기 민주주의를 열기 위한 세계인들의 대화

사업회는 '제 2회 UN 세계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기여를 모색하기 위해 2009 세계민주주의포럼을 개최했다.

2009세계민주주의 포럼은 지난달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서울민주주의포럼과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의 현대직접민주주의 포럼으로 구성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주한미국대사관 그리고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국제민간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가 공동주최하는 서울민주주의포럼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호 관계를 의제로 삼고 있다. 서울민주주의포럼은 한국의 경험과 아시아 각국의 현실을 비교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의 상호보완적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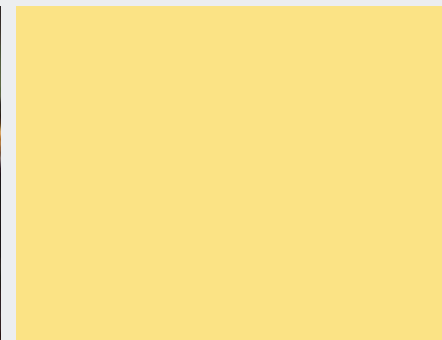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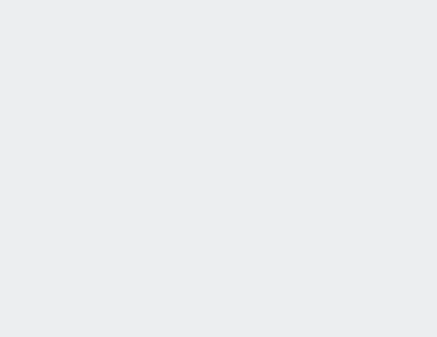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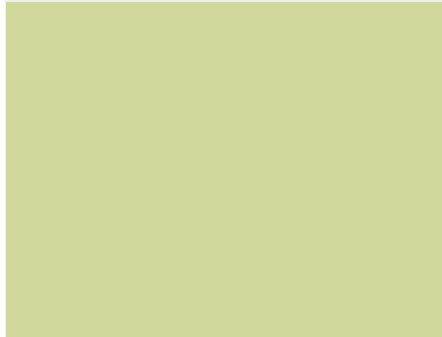


2009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사업회는 지난달 14일(월)부터 16일(수) 3일 동안, 2009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을 개최했다. 2009세계민주주의포럼의 하나로 구성된 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은 직접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또한 확장되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직접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활동했던 각국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해 처음 스위스에서 시작된 포럼은 올해 한국이 두 번째로 이는 한국사회가 신흥 민주주의 이행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하는 유럽주민발안과국민투표기구(IRI Europe, 이하 IRI)측의 강력한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남 영광 · 목포 · 해남지역 5·18민중항쟁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글 · 정호기 junghghg@paran.com

늦더위가 마지막 힘을 발산하던 지난달 중순, '민주화운동 관련시설 탐방' 두 번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탐방 지역은 전라남도 서부와 남부의 영광군, 무안군, 목포시, 해남군이었다. 탐방 지역과 시설들은 제 1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해 선정되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짧은 일정으로 위의 지역들과 그 내에서도 일부 시설들로 탐방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탐방 팀에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회원 분들은 대전에서, 필자는 영광에서 합류했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시·공간이 크게 압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한반도 남단까지의 여정은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여전히 먼 거리이다.

탐방은 백제의 고찰이자 상사화(相思花)로 잘 알려지고, 한국전쟁의 상흔을 담고 있는 불갑사로 가는 초입에 위치한 '박관현 상'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은 1980년 광주에서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의 고향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에서 열린 거리 정치에서 호소력 있고 자신감에 찬 박관현의 우렁찬 목소리를 기억한다고 말한다. 계엄령 발동 이전부터 시작된 예비 검속을 피하면서 5·18민중항쟁(이하 5·18)을 비켜갔던 박관현은 항쟁에서 죽어간 시민들에게 죄스러워하며 노동자로 숨어 지내다가 동료의 신고로 1982년에 체포되었다. 그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 10월 11일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사람들은 세 차례에 거친 50여 일 동안 교도소에서의 단식 투쟁이 박관현을 사망하게 했다고 믿고 있다. 1987년 11월 3일 전남대 학생들과 시민들은 당국에 의해 고향에 안장되었던 그의 유해를 전남대로 모셔와 추모식을 한 후 망월묘역으로 이장하는 의례를 열었다.

박관현을 주제로 건립된 시설들로는 전남대 법과대학 앞 언덕에 놓인 '박관현열사 혁명정신계승비' (1989. 5. 건립), 5·18자유공원 알림석 옆에 위치한 '들불열사 기념조형물'

(2002. 5. 건립) 그리고 '박관현 상' (2001. 11. 건립)이 있다. 높이 2m의 좌대 위에 225cm 높이로 세워진 동상이 갖는 특성은 민주화운동 관련시설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신상으로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박관현은 5·18에서 매우 강력한 상징적 인물이기에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지를 찾고 있다.

무안에서는 목포대학교가 탐방 장소였다. 박태영추모사업회와 목포민주화운동정신계승사업회(이사장 박광웅) 회원들이 일행을 맞아 주었다. 목포대에는 '고 박태영 열사 추모탑', '자주 민주 통일' 비 그리고 식수인 호랑가시나무와 '청춘'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식수비가 있다. 이 시설들은 박태영의 죽음을 추모하고,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우리는 이 시설들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해 있던 1987년 목포대학교를 연상할 수 있다. 박태영의 사망일이 12월 10일이었으므로, 박관현 다음에 박태영이 망월묘역에 안장되었을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 비는 본래 사회과학대학 앞에 건립된 조그만 비였는데, 학생회관 앞으로 이전하면서 445cm의 커다란 자연석 재질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식수(비)는 1987년 당시 총학생회가 6월민주항쟁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6월민주항쟁 제 10주년 기념시설은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내 '유월민주항쟁지원지' 표지석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목포대 교정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것이다.



영광 박관현 열사 동상 앞에서

사업회 소식

목포과학대학에는 ‘고 강상철 열사 추모비’와 5·18 표지석이 있다. 이곳에서 고 강상철의 아버님과 강상철추모사업회 회원들 그리고 전성렬 교수를 만났다. 강상철은 목포과학대를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이다. 그는 1986년 6월에 민중과 민주화 탄압 중지, 직선제 개헌, 5·18 진상규명 등을 주장하며 목포역 광장에서 분신했다. 그의 활동과 죽음은 5·18 이후 전개된 5월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비문에는 이 비가 1988년에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9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또한 추모비가 처음 건립된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눈에 잘 띄는 곳이었으나, 학교 정비 사업으로 지난해 교정 뒤편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으로 이전되었다. 이것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 건립과 장소를 두고 종종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준다.

목포는 광주와 더불어 5·18이 오랜 기간 이루어졌던 도시이다. 목포에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의 시민군을 진압한 이후에도 집회와 시위가 개최되었다. 원초적 사건으로서 5·18이 종결된 곳은 바로 목포역 광장이었던 것이다. 비록 목포에서는 계엄군의 발포와 무력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연유로 인해 안내석 3개와 표지석 9개 등 5·18 관련시설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목포과학대의 5·18 표지석은 이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외에도 일행은 5·18을 주제로 건립된 목포역 광장 안내석, 유달산의 구 목포MBC 표지석, 목포시민민주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안철 장로 안집 입구 표지석 등을 답사했다. 그리고 4·19혁명을 주제로 한 ‘민주화의 불길’이라는 기념비를 방문했다. 이 비는 1961년 유달산 현충탑 뒤편에 건립되었던 ‘4·19혁명학생기념비’를 이전하면서 지난해에 재 건립한 것이다. 목포 시내를 도보로 이동하던 중, 박광웅 님이 목포지역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던 청년회가 입주했던 건물로 안내해 주었다. 이 외에도 목포는 일제 시기의 건물과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어서 민주화운동 관련시설 탐방과 더불어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성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다.

밤 늦게 숙소로 도착한 일행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호남지회 회장으로 계신 고 김학수 아버님, 고 박승희 부모님, 고 강상철 부모님 그리고 해남 YMCA에서 활동중인 민인기, 한정진 님 등이 맞아주었다. 민폐를 끼칠 것 같아 탐방 주최 측은 시설 안내를 부탁하는 최소한의 연락만



목포대학교 자주·민주·통일비

드렸다고 했으나, 많은 분들이 풍성하게 맞아주어서 황송할 따름이었다. 고 박승희 아버님은 올해 12월 목포 정명여고에 박승희 흉상 제막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하기도 했다.

탐방 두 번째 날, 해남에서는 복원된 김남주 시인의 생가와 기념시설, 여성운동가이기도 했던 시인 고정희의 생가와 무덤 그리고 대흥사 일대에 세워진 5·18 표지석 2개에 대한 탐방이 이루어졌다. 민족시인 김남주 해남기념사업회 회장 김경운 님이 두 시인의 기념시설을 안내해주셨다. 두 시인을 주제로 한 시설들은 광주광역시 중외공원과 문화예술회관에도 각각 건립되어 있다. 이 분들의 삶과 활동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거론하는 것이 새삼스럽다. 두 분을 주제로 한 시설들에는 문학 답사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사뭇 비교되기까지 한 두 시인의 기념시설들은 서로 다른 삶의 경로와 활동 방식만큼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리고 친절한 안내 덕분에 지난 시설조사와 기존의 답사 글들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던 몇 가지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장거리 이동과 이틀이라는 촉박한 탐방 일정으로 목표한 시설 전부를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계획에 없던 시설들을 방문함으로써 총 14개의 시설을 탐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설들에 애정을 갖고 계신 30여 분들을 만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됨으로써 서로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탐방에서는 그다지 연계가 없을 것 같은 분들이 활동 지역과 부문 그리고 연령 등을 넘어 소통하고 있는 점들을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이번 탐방의 목적은 전남 서부와 남부 지역에 5·18민중항쟁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일부가 기억과 기념 시설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들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개로 한 사업들이 기획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두 번째 실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하고 정비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다음을 기약했다.



유가족 및 해남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글 정호기 | 자유기자가

사업회 소식

분야별 구술자료 활용사례 2009 구술워크숍 개최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구술자료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구술워크숍을 이달 23일(금)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분야별 구술자료 활용 사례를 통해 다양한 구술 콘텐츠 개발 방안과 전망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이 워크숍은 발제분야 아카이빙(정혜경,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 만화(김은성, 만화가), 웹콘텐츠(한동현, 외국대 대학원), 영상(이규정, 경기대 영상학과 교수), 교육(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전시(김윤정, 국립민속박물관) 등 6개 분야로 진행된다.

2009구술워크숍은 구술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의 다양한 가능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로 구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02-3709-7555)

민주시민아카데미 제 3강 개최



사업회는 지난달 10일(목) 저녁 7시 '2009 서울 민주시민아카데미' 제 3강을 개최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올바른 사회읽기'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시간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밀도 높은 강의로 진행됐다. 조국 교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소수자 보호'라는 주제를 본인의 풍부한 연구 활동 및 경험을 곁들여 쉽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조국 교수는 1970년대 권위주의 시대, 1987년 절차적 민주화, 1990년대 IMF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를 '맘몬의 시대'라고 표현했다. 조국 교수는 우리는 현재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정글 자본주의'에 사로 잡혀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점차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조국 교수는 보노보(인간과 가장 유사한 포유류)적 심성이 발현되는 보노보적 법과 제도를 꿈꾸기를 제안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사회, 물질보다 소중한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는 "불이익은 나누고, 불의는 참지 말자"라는 화두로 강연을 맺었다.

제 2차 찾아가는 학습모임 활동가, 지리산 품에 안기다



지난달 10(목)부터 11(금)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의 풀뿌리운동 활동가들이 남원지역의 풀뿌리운동 현장을 탐방했다. 이 현장탐방사업은 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아카데미 사업'의 하나로 '찾아가는 학습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되고 있다. 약 35명으로 구성된 현장탐방단은 지리산댐 건설이 예정된 용유담 지역을 방문하여 4대강사업과 지리산댐 건설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리산댐 건설이 초래할 생태파괴, 지리산권의 생활문화유산의 파괴 위험을 눈으로 확인했다. 실상사를 방문해 도법스님과 함께한 자리는 인간의 오만함과 알팍한 상상력에 대해 꾸지람을 듣는 시간이었다. 도법스님은 생명위기, 공동체 위기는 인간의 알팍한 상상력이 만들어 낸 산물인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상상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한계에 봉착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자연을 이용대상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바로 잡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첫걸음은 이웃과 자연과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임을 강조했다.

유영표 부이사장 제 3회 아시아민주화 세계포럼 비엔날레 참석



사업회 유영표 부이사장은 아시아민주화 세계포럼이 2년마다 주최하는 '제 3회 아시아민주화 세계포럼 비엔날레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의 뜻 깊은 의미를 축사로 전했다. 사업회에서 후원하는 이 행사는 아시아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노력과 기존의 좌우, 보수 진보, 민주 반민주에 대한 근대 서구유럽 중심적 틀을 넘어 아시아 지역 대중들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